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무등경기장의 폭격기는 어디로 갔는가

스포츠 경기장에 다시 관중이 들어간다. 얼마나 다...

은 또 좀 느긋한가. 경기 후반에 역전 기미라도 있다면...

경기 사이사이에 관중은 자기 나름대로 '자발적 정...

옛날 무등경기장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

다만 우리 관중들은 주로 앉아 있었다는 것만 달랐...

다. 당시 야구는, 어쩌면 스포츠라기보다는 전투 같은...

최근에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경기장이 중계 화면...

무시무시한 아우리를 가진 선동열 선수도 물론이다...

기고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거는 기대



정현복 광양시장

인식한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에 이어졌...

이 중 20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 체험 및 문화 공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육재단의 재정 규모가 해를 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단체·기업에 포함한 전제...

든 가정이 후원에 참여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고...

다음으로 기존보다 규모나 질적으로 우수한 선진 보...

위탁자들이 아첨적덕으로 아이를 맡기고 찾으러 가...

광양시와 보육재단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활용해 '아...

의료칼럼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다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간호사는 의료...

그 이유는 간호 관련 법안들이 11개 부처 90여 개로...

선진국들은 노인 인구 증가로 질병의 양상이 만성질...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지금의 의료법은 치료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질...

社說

경찰이 자체 종결한 수사 과연 믿을 만한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찰에 대한 수사...

광주경찰청이 올해 1분기(1~3월) 중 검찰에 송치한 사...

이에 반해 검찰의 재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는 크게 늘...

혁신도시 기업 적자에도 임원 연봉 올렸더니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열두 개 기업·기관 가운데 여섯 곳이 2020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2개 기업·기관 가운데 5개사가 적자 전환하거나...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

도 278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송치 사건(4898건)의 5.6%에 해당한다.

게다가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여부 등을 파악해 요구하는 시정 조치도 올 1분기에 21건에 달해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무분별하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소리로 나온다.

(평균 연봉 1억6392만 원)였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업·기관들은 고임금과 안정적 고용 특성 때문에 '꿈의 직장' 또는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

기업·기관들의 임원 연봉을 평균 5600만 원 넘게 인상했다.

다. '4시에 나가 온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규범으로서의 언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無等鼓

며칠 전 동화 '애린왕자' (도서출판 이팝)를 접했다. 잘못 쓴 게 아니다.

'애린왕자'를 경상도 사투리로 바꾼 '애린왕자'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글귀들이 있다.

'애린왕자'를 경상도 사투리로 바꾼 '애린왕자'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글귀들이 있다.

대상으로 여겨 왔다. 코로나19로 '로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건 다행이다.

원래 '애린왕자'는 각국의 독특한 언어로 출간하는 독일 출판사 틴텐파스에서

지난해 6월 낸 책이다. 출판사는 고대 이집트어나 심지어 모르스 부호로도 '어린왕자'를 번역해 펴냈다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표준어'에 대해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으로 여겨 왔다. 코로나19로 '로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건 다행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김홍재, 편집국장 김재홍.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222-8111.